영어 발음 진단법

인문대학 언어학과 이 현 복

1. 들어가기

오늘날 영어는 국제어로 부상하여 국제무대에서는 물론이고 사회 각 분야에서도 그 필요성과 유용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학에서는 강의를 영어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회의마저도 영어로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영어를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발음이 정확해야 한다. 발음이 바르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의사 전달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 글은 한국인의 영어 발음을 다소나마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하였다.

수년전 나고야 공항 세관 검사대에 가방을 올려놓자, 젊은 여성 세관원이 영어로 질문을 던진다: "[huat to izu yua papasu]. 그런데 뒷부분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되물으니 답은 똑같다. 일본영어음성학회에서 일본인의 영어발음에 관한 기조 강연을 위해 가는 길인데, 난감하게도 몇 번을 다시 물어도 똑 같은 발음의 영어가 나오고, 이러기를 몇 차례 하다 보니 세관원은 당황하였다. 그 순간 번개같이 머리속에서 답이 나왔다. 즉 "What is 'your purpose ?"란 답이 나왔다. 문제는 ['pəː pəs](♩♪) 를 [papasu](♪♪♪)로 발음하여 모음의 음가와 길이, 강세 및 리듬이 잘못이고 음절수도 하나가 더 늘어나서 생긴 불통이었다. 한국인의 영어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얼마든지 일어 날 수 있다. 정확한 발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2. 표준발음은 왜 필요한가?

영어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대단히 큰 자산이며 사회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에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비표준적인 발음으로 영어를 하면,

1) 내 뜻을 남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고,
2) 좋은 인상과 인품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3) 나라 안팎에서 성공적인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렵다.

특히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와 교수, 국제무대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나 공무원, 기업인 등은 바르고 정확하며 표준적인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유익하며 바람직하다.

영어는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두 영어는 어법이나 어휘에서도 차이가 있으나 발음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영국 영어는 "crisp"하다고 한다. 감자 튀김같이 청각적으로 바삭바삭하여 절도있고 또박또박한 인상을 준다고 한다. 이에 비해 미국 영어는 기름기가 많아 두리 뭉실하다고 할까! 그러나 크게 볼 때에 같은 영어인 만큼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많다. 여기서도 영·미 공통의 핵심적인 발음을 중시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로 설명한다.

3. 발음 진단법

발음을 고치려면 우선 자신의 발음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영어 음성학 전문가의 진단을 직접 받아야 한다. 음성학자는 발음을 듣고 정밀한 진단과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정을 해야 한다. 의사가 인체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면 음성학자는 사람의 발음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를 찾아가서 발음 진단을 받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에 앞서서 스스로가 자신의 발음 상태를 개략적이나마 진단해 볼 수는 없을까? 이 자료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마련되었다. 이는 손쉽고 간단하며 부담 없는 〈자가 발음 진단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1970년대부터 대한음성학회와 한국어/영어 발음 연수회, 각급 교육 연수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및 타 대학에서의 음성학 강의를 통하여 발음 진단을 해온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인에게 어려운 영어 발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교정할 수 있었다.

4. 발음 진단용 자료: 검사표

발음을 진단하려면 진단에 사용할 검사 자료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두 가지 검사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 검사법은 30개의 낱말 짝, 즉 최소대립어로 이루어진 〈낱말발음검사법〉이다. 두번째는 문장을 이용한 〈문장발음검사법〉이다. 여기서는 먼저 낱말발음검사법을 제시한다.

1) 낱말 발음 검사

낱말발음검사는 낱말을 이용하여 발음을 진단하는 검사법이다. 최소한의 낱말을 이용하며 이들을 올바로 구별하여 발음하는 가를 확인하게 된다. 이 자료는 청취 검사에도 사용될 수 있다. 검사자가 이들 낱말들을 순서대로 발음하고 이를 받아 적도록 하여 청취 능력을 진단하는 검사법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를 발음 검사용으로 사용한다.

기 록 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낱말 발음 검사표

TEST WORDS	O X	TEST WORDS	O X
1) they - day		16) leave - live	
2) low - law		17) know - no	
3) soul - sole		18) zoo - jew	
4) peas - peace		19) heart - hurt	
5) cork - cock		20) bees - beads	
6) pine - fine		21) code - curd	
7) cats - catch		22) ledger - leisure	
8) duck - dark		23) dead - dad	
9) pull - pool		24) pet name - pen name	
10) lay - ray		25) citizen - seventy	
11) vote - boat		26) important - capital	
12) such - search		27) Italy - identity	
13) turn - torn		28) computer - company	
14) age - aids		29) cooperate - corporate	
15) trees - cheese		30) greenhouse - green house	

2) 자신의 발음 진단하기

앞에 나온 발음검사표를 보고 1번부터 낱말 짝을 천천히 발음하며, 두 낱말이 동일하게 발음되었다면 〈O〉를 적고 다르게 발음되었다면 〈X〉를 적는다. 이 〈낱말발음검사표〉에서 1~24번은 주로 자음과 모음의 음가 및 모음의 길이를 검사하는 자료이고 25~30번은 강세의 위치와 리듬 패턴을 검사하기 위한 자료이다. 아무리 모음과 자음의 발음이 좋아도 모음의 장단이나 강세와 말의 리듬이 바르지 않으면 영어다운 영어를 할 수 없다. 25번부터가 그러한 운율 문제를 다룬다. 먼저 발음 진단을 한 다음에 뒷부분에서 필자가 제시한 진단 해설을 읽어 보면 자신의 발음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발음 진단 및 등급 확인

위의 기록표와 책의 끝 부분에 나와 있는 정답표를 대조하여 자신의 정답수를 집계하고 이를 다음의 등급표와 대조해 보면 자신의 발음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급은 5단계로 분류되며 제일 높은 등급이 수(A+)이고, 이어서 우(A), 미(B), 양(C), 가(D)로 나뉜다.

	정 답 수	평 가	등 급
1	30 - 28	A+	수
2	27 - 25	A	우
3	24 - 20	B	미
4	19 - 15	C	양
5	14 이하	D	가

5. 영어 발음 진단 해설

다음의 발음 해설을 참고하면 영어를 듣고 발음하고 교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they/day : 한국어에는 없는 유성마찰음 [ð]와 유성파열음 [d]를 구별하여 발음하는지를 보기 위한 문제이다. they는 혀끝을 웃니 안에 가까이 댄 채로 이빨과 혀끝 사이로 공기가 나가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이고, day는 파열음이다. [ð] 소리가 한국어에 없는 만큼 한국인은 [d]와 혼동하기 마련이다.

2) low/law : [l] 소리 다음의 모음 음가를 검사한다. low는 이중모음이어서 [어우] 또는 [오우] 로 나고 law [ɔ:]는 단순모음 [오:]로 길게 난다. 그러나 한국인은 둘 모두를 이중모음 [오우] 내는 일이 흔하다.

3) soul/sole: 철자는 다르나 두 낱말의 모음이 모두 이중모음 [ou]로 같다.

4) peas/peace : 무성자음으로 끝나는 peace [pi:s]는 모음 [i:]가 상당히 짧게 나고 유성자음으로 끝나는 peas [pi:z]는 모음이 길게 나므로 구별이 된다. 한국인은 이런 구별을 안 하므로 영어할 때에 뜻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는다.

5) cork/cock : cork의 모음은 한국어의 긴 모음 [오:]와 유사한 긴 모음이며, cock은 훨씬 더 턱과 혀가 열린 채 나는 짧은 모음인데, 우리말 [어]를 발음하되 입술을 둥글게 하면 이 소리를 낼 수 있다. 미국 영어에서는 cock을 [칵]으로 발음하므로 음가도 많이 다르다.

6) pine/fine : 순치유성마찰음 [f]와 무성파열음 [p]의 구별 능력을 보는 문제이다. [p]는 우리말 [ㅍ]와 유사하여 별 어려움이 없으나, [f]는 앞쪽 윗니와 아래 입술이 접근한 상태에서 그 사이로 공기가 나오면서 나는 갈이 소리이다. [f]는 우리말에 없는 조음운동이어서 긴장을 하게 되므로 face [feis]를 [fueis]로 내는 일이 많다. 긴장하지 않고 발음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7) cats/catch : 끝 자음이 파찰음으로 끝나는 것은 같으나, cats[ts]는 치조음이고 catch [tʃ]는 더 안쪽에서 나는 후치조음 또는 경구개음이어서 소리에 차이가 있다. [ts]는 우리말 〈맛살〉에서 날 수 있고 [tʃ]는 우리말 [ㅊ]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8) duck/dark : duck은 [ʌ]모음이 짧고 dark의 [ɑ]은 혀가 더 후퇴한 후설모음이고 길게 나며 어두운 음색이 있다. 미국 영어에서는 duck 이 [덕] 같이 나는 모음이고 [r]도 발음된다. 영국 영어에서는 모음이 모두 [아] 같이 나나 길이가 다르고 음가도 물론 다르다.

9) pull/pool : pull의 짧은 모음 [u]는 우리말 [우]보다 낮은 위치에서 나며 입술 둥글음도 약하여서 [으] 같이 들린다. 일본어 [우]에 아주 유사한 소리이다. pull과 대립되는 pool의 긴 모음 [u:]는 우리말의 [우:]와 유사하다.

10) lay/ray : 자음 [l]과 [r]의 구별을 보는 문제이다. 혀옆소리 [l]은 웃잇몸에 혀끝을 단단히 대고 혀 옆으로 공기를 내보내어 내는 소리이고 접근음 [r]은 혀를 잇몸 쪽에 접근하여 내는 소리이며 원순으로 발음한다. 한국인은 이 두 소리를 혼동하는 일이 많다. lay는 〈얼레이〉를 발음할 때 나오는데 다만 [ㄹㄹ]을 짧게 내야하고 맨 앞의 [어]를 제거하고 발음할 수 있어야 한다.

11) vote/boat : 유성순치마찰음 [v]와 유성양순파열음 [b]의 대립이다. 위의 pine/fine(6번)과 같은 경우이나 다만 유성음인 점이 다르다.

12) such/search : 모음의 차이이다. 영국 영어에서는 such [sʌtʃ](싸취]와 search [sə:tʃ](써:

취)로 음가와 길이가 확연히 들어나나 미국영어에서는 모음의 음가 차이가 크지 않고 다만 길이에 차이가 있으며 또한 [r] 소리가 나는 것이 다르다. search는 긴 중앙모음 [ə:]가 들어 있는데, 우리나라 표준발음의 [벌:]과 유사한 소리이다. 그러나 한국인은 대부분 [벌]에서 나는 짧은 모음 [ʌ]로 내는 일이 많다. [ʌ]는 [ə:]보다 혀의 위치가 낮다.

13) turn/torn : 모음의 차이이다. turn의 모음은 위에 말한 search와 같으나 torn은 law(2번)와 같다.

14) age/aids : 어말 자음의 차이이다. age는 7번 catch의 유성이고 aids의 [dz]는 cats [ts]의 유성음이다.

15) trees/cheese : 초성 자음의 대립이다. [tr]는 후치조의 파찰음으로 혀끝이 흔히 위쪽으로 말려져 있고 ch [ʧ]는 혀가 말려 올라가지 않는다.

16) leave/live : 긴 모음 [i:]와 짧은 모음 [i]의 구별이다. leave는 모음이 길뿐만 아니라 혀 위치도 높아서 긴장된 소리이고 짧은 [i]는 이완된 소리이다.

17) know/no : 둘 다 모음이 [ou]로 발음이 동일하다.

18) zoo/jew : 초성 자음 [z]와 [ʤ]의 대립이다. [ʤ]는 age(14번) 같은 소리이고 [z]는 한국인에게 대단히 어려운 [s]의 유성음 [z]이다. 한국인은 [z]를 파찰음 [ʤ]와 동일하게 듣고 내며 혼동하는 습관이 있다.

19) heart/hurt : heart [hɑ:t]와 hurt [hə:t]의 모음 대립이다. [ɑ:]는 혀가 뒤로 후퇴한 채 발음되는 후설모음으로 우리말의 긴 [아:]에 가깝고 hurt의 모음은 이미 12), 13)의 search와 turn에서 나온 모음과 같다.

20) beas/beads : 종성 자음의 차이이다. bees [bi:z]는 치조 유성 마찰음이고 beads [bi:dz]는 그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 [d]와 어울려 파찰음의 효과를 낸다. 따라서 순간적으로 [z] 앞에서 공기가 차단된다.

21) code/curd : code [koud] 는 2번)에 나오는 이중 모음이고 curd [kə:d]는 19)번 hurt에서 나는 모음이다.

22) ledger/leisure : 중간 자음의 차이이다. ledger의 [ʤ]는 후치조 파찰음이고 leisure의 [ʒ]는 마찰음으로 이 또한 한국인에게는 어려운 모음이다.

23) dead/dad : 반폐모음 [e]와 반개모음 [æ]의 대립이다. 우리말의 [에]/[애]의 대립과 유사하다. [æ](애)는 [e](에) 보다 턱과 혀가 많이 벌어졌다.

24) pet name/pen name : 낱말 경계의 동화 현상이다. pet name에서 [tn]은 [nn]으로 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pen name과 구별이 안된다. 한국인은 〈믿는〉, 〈갓난〉 을 [민는], [간난]으로 하듯이 pet name도 pen name으로 발음을 잘못하여 pen name과 구별을 못한다.

25) ′citizen / ′seventy: 강세가 모두 첫음절에 놓이므로 리듬 유형이 같다.
26) im′portant/ ′capital : 강세 위치가 다르다. important는 〈디땅디〉(♪♩♪) 리듬으로 발음되고 capital은 〈땅디디〉(♩♪♪) 리듬으로 난다.
27) Italy/identity : [′itəli]와 [ai′dentity]로 강세 위치가 다르다.
28) computer/company : com′puter와 ′company로 강세 위치가 다르다.
29) co′operate / ′corporate : 강세의 위치와 리듬이 다르다.
30) ′greenhouse/green ′house : 제1강세의 위치가 다르다.

정 답 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X	X	O	X	X	X	X	X	X	X	X	X	X	X	X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X	O	X	X	X	X	X	X	X	O	X	X	X	X	X

6. 문장 발음 검사

문장 발음 검사는 피검자가 대화체의 문장을 읽으면 전문가가 이를 듣고 발음을 진단하는 검사법이다. 가능하면 짧은 문장이되 그 안에 영어에 쓰이는 모든 말소리가 두루 포함될 수 있도록 꾸민 문장이어야 한다. 다음에 영어 발음 진단용 문장을 제시한다. 이 진단용 이야기는 영국의 음성학자 Harold Palmer 교수가 발표하여 널리 쓰이는 진단용 이야기이다.

At what time are you going to the exhibition? I thought I heard you tell your brother this morning that you expected to meet him there at about two.

Yes. Would you like to join us there?

I would, with pleasure, but I am not sure whether I can. In any case I must leave early to catch the four train. I do not live here now; I live in the suburbs and I want to get home before it is dark.

Are you really in such a hurry to get home? Must you? If it is solely on that account, we can take you back in our car.

Can you? That will be splendid! All right.

HAROLD E. PALMER, *A Few Documents on English Phonetic Notation*, Tokyo, 1925.